

“20m 앞에 흑두루미가”…숨죽인 탐조객 셔터소리만

순천만습지 흑두루미 월동지 탐조 관광 따라가보니

‘탐사르길’ 인근 장관…체험형 투어프로그램 연일 매진
망원경 들고 멸종위기종 관찰 분주…SNS ‘인증샷’ 확산
지난해 117만5376명 방문 ‘증가세’…4월까지 월동할 듯

“설마 저것도 흑두루미야?”, “진짜 많다!”, “도심에선 보기 힘든 풍경이네. 오길 잘했다.”

13일 오후 4시께 순천시 대대동 순천만천문대에 서는 갈대숲 위로 몰려든 흑두루미를 본 탐조(探鳥)객들의 감탄사가 잇따라 터져나왔다.

순천시가 운영하는 ‘탐조기획시티투어’에 참가한 탐조객 10명은 저마다 망원경을 들고 순천만습지 갈대밭 탐방로 전역에 앉아있는 흑두루미와 재두루미, 독수리를 연신 바라보느라 여념이 없었다.

천문대에서 바라본 하늘은 흑두루미 무리로 깨끗해 뒤덮여 있었고, 갈대밭, 탐방로 인근 농경지 북원지까지 흑두루미가 가득 몰려들어 쉬거나 먹이활동을 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맨발걷기 코스로 알려진 ‘탐사르길’ 인근에는 흑두루미가 가장 많이 몰려들어 물결을 이루는 듯한 장관을 보여주고 있었다.

탐조객들은 낮게 울려 퍼지는 ‘꼬록 꼬록’ 흑두루미 울음소리를 들으며 “울음소리를 처음 들어봤다”며 웃음을 터뜨리고, 이어폰 너머 해설사의 설명에 흥미롭게 귀를 기울이다가도 혹시나 놓치는 장면이 있을까 망원경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순천만습지 탐방로를 걷던 탐조객들은 일부 흑두루미 무리가 불과 20m 앞 까지 다가오자 숨을 죽이고 카메라 셔터를 연신 놀라대기도 했다.

탐조객들은 “흑두루미를 직접 보니 신기하고, 재밌다”고 입을 모았다.

수능이 끝나고 보고싶던 흑두루미를 보러 왔다는 이윤지(여·19)씨는 “SNS에서 흑두루미 사진이 많이 올라오는 걸 보고 순천에 이 새가 온다는 걸 알



SNS에 올라온 순천만 흑두루미 인증사진. <(X/엣 트위터)캡처>

게 됐다”며 “막상 왔는데 없으면 어떻게 하지”, ‘정말 볼 수 있을까’ 싶었는데 걱정과 달리 곳곳에서 보이니까 웃음이 나오더라”고 말했다.

제주도에서 이곳을 찾은 김석후(73) 씨는 “처음 오는데 먹이 먹는 큰 새가 있길래 봤더니 흑두루미였다. 옆에는 독수리도 있었다”며 “미국에도 살았을 때도 베어로나 곰은 봤지만, 흑두루미는 물론이고 독수리도 본적이 없었다. 너무 벽하고 신기한 경험을 하고 간다”고 말했다.

최근 순천만습지는 이처럼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흑두루미를 직접 보겠다는 탐조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일대는 과거 관행농업이 이뤄지던 농경지였지만, 순천시가 지난 2009년부터 순천만 서식환경 개

선을 위한 토지 매입을 추진하고 전봇대 282개를 뽑아내면서 흑두루미를 비롯한 겨울 철새들이 더욱 몰려드는 명소가 됐다.

특히 올 겨울 들어 순천만습지에서 흑두루미가 대규모 월동을 시작하면서 연일 투어 프로그램 예약이 ‘매진’되고, 인스타그램 등 SNS에도 “대열을 맞춰 움직이는 모습이 장관이다”, “4월까지만 볼 수 있다니 빨리 와야겠다”며 ‘순천만 흑두루미 인증샷’을 올리는 흐름도 확산하는 분위기다.

순천만습지 탐조 프로그램은 습지 입장료 가격과 동일한 1인당 1만원으로 운영되며, 서식지 보호를 위해 회차당 최대 10명씩만 참가할 수 있다.

탐조 프로그램 참여자는 지난해 8월 16명, 9월 41명에 그쳤지만 흑두루미가 찾아오기 시작한 가을부터 급증해 10월 237명, 11월 134명, 12월 390명으로 뛰었다. 이달만 해도 벌써 79명이 참여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인원 수 제한을 고려하면 거의 매일 ‘만석’인 상태다.

하루 최대 15명씩 예약제로 운영되는 탐조 기획시티투어(인당 2만원) 역시 수요가 빠르게 늘어 지난 2024년 11월~2월, 지난해 11월~12월 꾸준히 월간 200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흑두루미 인기와 함께 순천만습지 방문객도 급증했는데, 지난 2024년 76만1214명에서 지난해 117만5376명으로 54.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하루만 해도 순천만습지에 1040명이 찾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창규 순천만습지 해설사는 “철새가 찾는 곳은 생태보존의 중점이라고 볼 수 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해 탐사르 습지로 지정된 순천만을 지키며 우리세대 뿐만 아니라 후세세대도 물려줄 수 있도록 보호 활동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9일 기준 순천만습지에는 7567마리의 흑두루미가 찾아와 월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올해 4월까지 순천만 일대에서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순천 글·사진=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멸종위기종 흑두루미를 보기 위해 13일 순천만습지를 찾은 탐조객들이 망원경으로 새를 관찰하고 있다.

제 할아버지는 ‘광주 학살자’입니다

전두환 손자 전우원씨, 5·18 참상 웹툰 공개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30)씨가 최근 SNS에 5·18 민주화운동을 알게 되며 충격을 받았다는 취지의 만화를 게시했다.

전씨는 13일 SNS 인스타그램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웹툰 1부 마지막화를 공개했다.

전씨는 지난해 12월 4일부터 이날까지 인공지능(AI)으로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웹툰을 올려왔다. 전씨는 웹툰에서 자신을 ‘몽글이’라는 이름의 양처럼 생긴 캐릭터로 묘사하며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그렸다.

웹툰은 전씨가 어린 시절 미국 유학을 다니며 고통함을 당했던 이야기로 시작해 전두환 일가로부터 학대 및 고통을 받아 온 내용들로 차워졌다.

전씨는 5·18의 참상을 자세히 알게 된 계기도 웹툰으로 그렸다.

웹툰에서 전씨는 인터넷에서 5·18 관련 자료를 뒤져보며 “설마 이렇게까지 잔인했을 리가”, “5·18 민주화운동 사망자 수, 실종자, 고문…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야. 우리 가족은 도대체 뭐지”라며 공포에 질리



전우원씨가 자신의 SNS에 게시한 웹툰. <(전우원 인스타그램 캡처>

는 모습으로 그려졌다.

전씨는 지난 2023년 3월 13일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제 할아버지는 학살자입니다.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고통받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며 사죄했던 장면도 웹툰으로 그렸다.

전씨는 당시 자신이 전두환의 손자라는 사실을 밝히고 연희동 전두환 자택 안에 비자금이 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후 같은 달 28일 한국에 입국했으며, 같은 달 31일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광주시민과 5·18 관계자 등에게 사죄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전남 건설현장 부실시공·품질관리 소홀 적발

도 감사, 1억7700만원 감액·회수…공무원 훈계 등 조치

시방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품질관리에 소홀한 전남도내 건설현장이 전남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2025년 하반기 건설현장 민·관 합동 기동감사’를 벌여 3건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 1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훈계)를 요구하는 한편, 1억7700만원의 감액 및 회수를 요구했다.

전남도는 2025년 11월 10일부터 12월 24일까지 전남도청과 8개 시·군 내 건설현장 940곳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부적정한 시공 행태를 적발했다.

여주시가 지난 2024 1월부터 추진 중인 사업비 22억8000여만원 규모의 공사 현장에서는 시방서와 다르게 용역의 기초 지반에 대한 지내역 시험을 미실시하고, 배수관 주변에 잡석층을 설치하지 않아 건축물 외벽과 용벽에 균열 발생한 것으로 드러

났다.

전남도는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건설사업자와 현장대리인에게 부실 별점 부과와 함께 용역 안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하고 공사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공사감독자·공무원을 ‘훈계’ 조치해 줄 것을 여수시에 요청했다.

회순군이 지난해 2월부터 추진 중인 사업비 51억 5300여만원 짜리 공사는 품질관리자를 배치하지 않고, 품질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품질시험마저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불필요한 임시침사지(토사유출 저감 장치) 등을 설계변경을 통해 감액하지 않았고, 시공사에서 허위로 청구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확인하지 않고 정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가습기살균제 피해 29명 추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4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위원회에서 29명을 신규 피해자로 인정해 구제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인정받은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5971명이다.

이날 열린 위원회에서는 피해 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41명의 피해 등급도 결정됐다.

이번에 새로 피해자로 인정됐거나 피해 등급 결정을 받은 이들 중엔 폐암 피해자 4명도 포함됐다.

현재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구제급여, 진찰·검사비 등을 합쳐 총 2080억원이 지원됐다.

정부는 작년 12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피해자 지원을 국가 주도로 전환하는 내용의 피해자 종합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출연을 올해부터 100억원을 시작으로 재개하고, 피해자의 순회배상 청구권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 소멸시효는 폐지하기로 했다.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광주문화신협 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